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의 의미소통과 향가 원가의 정서적 지향

李 丞 南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 I. 머리말
- II. 피은편의 의미와 신충괘관조의
서사구조
- III. 부분 서사들의 의미소통 - 登官
의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 IV. <원가>의 서사적 위상과 정서
적 지향
- V. 맺음말

<논문 요약>

본고는 『三國遺事』 避隱篇 信忠掛冠條 서사의 의미소통 양상과, 여기에 실려 전하는 향가인 <怨歌>가 지니는 서사적 위상 및 그 정서적 지향에 대해 고찰했다. 신충괘관조의 서사적 진술 부분을 양분하고 있는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와 경덕왕대 신충 이야기는 각각 등관과 괘관이라는 서로 상반된 의미의 연결이 이 조의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을 드러내는 관건이 된다.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지닌 등관을 핵심으로 서사적 전개가 이루어지는 ‘信’의 서사이다. 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서사적 의미로 인해 괘관 이야기가 그 반사회적 의미를 제거하게 됨으로써, 등관과 괘관 사이의 원활한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이 생성하게 되고, 경덕왕대의 신충 이야기는 ‘忠의 서사’가 된다. 이와 같이 ‘신’과 ‘충’의 의미로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신충괘관조의 서사는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이라는 피은편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의 맥락에 뚜렷하게 포섭될 수 있으며, 말미에 붙여진 일연의 찬시도 ‘충’의 서사만이 아닌 怨의 서사까지 포괄하면서도, ‘원’이 아닌 ‘충’의 정서를 표방함으로써, 이러한 피은편 서사의 서사적 의미에 긴밀하게 호응한다. <원가>는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에서 신원을 통해 해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서사적 위상이 발견되는데, 현전하는 8구만으로도 한 편의 가요로서 정서적 완결을 이루어 내며 체념 속의 원망의 정서를 탄식으로 마무리된다. 이 <원가>는 타인이나 세계에 대한 대립적 정서를 지향하지 않음으로써, 향가라는 서정장르에 속하는 가요로서 그 서정성의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징표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삼국유사, 피은, 신충괘관, 향가, <원가>, 찬시, 등관, 서사, 의미소통, 맥락, 찬시, 정서 지향.

I. 머리말

본고는 『三國遺事』 卷第5 避隱 第8 信忠掛冠條 서사의 의미소통 양상과, 여기에 실려 전하는 향가인 <怨歌>가 지니는 서사적 위상 및 그 정서적 지향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삼국유사』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으로서의 설화적 문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가>를 비롯한 『삼국유사』 소재 향가를 대상으로 한 논의에 있어서는 『삼국유사』의 이러한 서사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¹⁾ 신충패관조에는 일련의 서사적 전개와는 별도로 이 서사 내용에 대한 찬자인 일련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앞부분에는 효성왕대와 경덕왕대의 신충의 일이 서사적 진술로 제시되고, 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일련이 참고했던 『三國史記』와는 또 다른 두 기록이 협주와 본문을 통해 설명적 진술로 부연되고 있다.

설명적 진술로 제시된 일련의 언급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효성·경덕왕대 신충 이야기와 또 다른 기록인 삼화상전의 신문왕대 신충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인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신충 이야기에서의 신충에 의한 단속사의 창건이 별기(혹은 고승전)에는 이준 혹은 이순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²⁾

신충패관조의 서사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나 가요인 <원가>에 문학적 탐구의 다양한 논의들에 있어서는, 서사적 진술로 제시된 신충 이야기와 그와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기록들 사이의 이러한 내용상의 괴리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곧, 효성왕, 경덕왕, 신문왕대

1) 삼국유사의 서사를 역사의 문맥으로 보느냐, 설화의 문맥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며, 연구자의 문맥 혼동이 원천적으로 설화와 역사를 혼동한 찬술자의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황폐강, 「삼국유사와 향가연구」, 『향가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1998, p.22 참조.

2) 이러한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논의는 이승남, 「삼국유사 신충패관조에 나타난 일련의 서사적 시각」, 『한국사상과문화』 40집, 2007 참조.

에 각각 전하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어떠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점과 단속사 창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 등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신충이라는 인물에 관해 제시된 이 내용들 사이의 상이함이 파생하고 있는 서사적 전개상의 혼란스러움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주로 주목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천착에서 벗어나 신충패관조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소통의 양상에 주목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이 조의 서사적 진술 부분인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와 경덕왕대 신충 이야기 사이의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소통의 맥락은 이 효성·경덕왕대의 신충 이야기와 시공을 달리하며 전하고 있는 삼화상전의 신문왕대 신충 이야기 사이에 놓인 서사적 의미의 관련성에 대한 천착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신충의 패관과 피은, 단속사 창건 등의 이야기가 지닌 서사적 의미와 그 의미소통의 맥락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신충의 이야기에 대해 일연이 제기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 그 자체보다, 그 의문에 대한 검증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적 진술들이 생성하고 있는 서사적 전개상의 관련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충패관조 서사의 의미소통의 구조와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몇 개로 분단되는 신충패관조의 부분 서사들 곧, 효성·경덕왕대 신충 이야기는 물론, 이에 이어지는 상이한 기록들에 관한 일연의 설명적 진술 부분과 일연의 찬시 들은, 신충패관조의 전체 서사는 물론 『삼국유사』 피은편 10개의 서사가 지향하는 총체적 의미망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향가 <원가> 역시, 이 가요가 속해 있는 부분 서사인 효성왕대의 신충 이야기는 물론 또 하나의 부분 서사인 경덕왕대의 신충 이야기와의 긴밀한 의미소통의 맥락을 통해, 그리고 신충패관조 및 피은편 전체 서사의 총체적 의미망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전제로, 먼저 신충패관조의 서사구조와 의미소통의 양상을 살피고, 이러한 의미소통의 맥락 속에서 한 편의 가요로서 <원가>

가 지나는 서사적 위상을 점검하는 한편 그 정서적 지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피은편의 의미와 신충패관조의 서사구조

신충패관조의 신충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서사적 의도는 우선 피은편 전체의 의미망 속에 파악될 필요가 있다. 10편의 이야기가 전하는 피은편의 서사는 모두 피은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이다. 피은이란 속세를 떠나 은둔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은편 개별 서사의 주인공들 모두가 속세를 떠나 은둔한 것은 아니다. 이들 개별 서사의 주인공들 중에는 결과적으로 피은을 하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 곧, 피은편은 궁극적으로 속세를 떠났다는 점이 아니라, 피은의 행위나 태도 그 자체가 지닌 성격과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 사회를 떠나 은둔하는 피은은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피은편의 개별 서사들에서, 피은을 하는 주인공들의 행위나 태도는 반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피은 태도가 이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문면에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거나,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는 대신 서사 전개에서 개인의 피은 행위나 태도를 통해 그들이 지닌 피은의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³⁾ 곧, 이 ‘피은의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 획득’이 피은편 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은편은 이러한 의미를 중심으로 피은의 주인공들을 賞讚한 이야기이다. 피은편의 모든 개별 서사들을 통해 각 인물들의 피은 행위는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속세를 떠나는 것이었던 아니든 간에, 피은편 전체 서사의 틀 속에서 그 주제가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으로 귀

3) 이상 피은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승남, 「우적가 일고찰」, 『한국문학연구』 1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참조.

납되고 있다.⁴⁾

이처럼 피은편 개별 서사가 모두 궁극적으로 피은을 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은이라는 하나의 편명으로 묶여 제시되고, 인간 속세를 떠나는 반사회적 행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와 태도를 통해 인간 사회의 명예롭고 긍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 신충패관조의 이야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찬자인 일연의 서사적 의도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일연은, 신충의 피은이 몸은 비록 인간 속세를 떠나는 것이지만, 속세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임을 신충패관조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신충패관조 전체 서사의 분절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작게는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孝成王이 潛邸에 있을 때 어진 선비 信忠과 더불어 宮庭의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면서 일찍이 말하기를 "훗날 만약 그대를 잇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 신충이 일어나서 절했다. 몇 달 뒤에 효성왕이 왕위에 올라 功臣들에게 상을 주면서 신충을 잊고 차례에 넣지 않았다. 신충이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했더니 노래를 얻어다 바쳤다. 왕은 크게 놀라서 말했다. "政務가 복잡하고 바빠 角弓을 거의 잊을 뻔했구나." 이에 신충을 불러 벼슬을 주니 잣나무가 그제야 다시 살아났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향가 원가> 이로써 兩朝에 걸쳐 총애를 받았다.

[2] 景德王[왕은 곧 孝成王의 아우이다.] 22년 癸卯에 신충은 두 친구와 서로 약속하고 벼슬을 버리고 南岳에 들어갔다. 두 번을 불렀으나 나오지 아니하고 머리 깎고 중이 되었다. 그는 왕을 위하여 斷俗寺를 세우고 거기에 살았는데, 평생을 丘壑에서 마치면서 대왕의 복을 빌기를 원했으므로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4) “피은이란 단순히 세속 사회로부터 깊은 산중으로의 공간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영화, 세속적 공명과 같은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수행자가 마땅히 버림으로써 획득하는 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 듯하다.”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민음사, 1997, p.458.

[2-1] 임금의 眞影을 모셔두었는데 금당 뒷벽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쪽에 俗休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와전되어 小花里라고 한다.

[3] [『三和尚傳』을 살펴보면 信忠奉聖寺가 있는데 이것과 서로 혼동된다. 따져 보면 神文王 때는 景德王과 100여 년이나 되는데, 하물며 神文王과 信忠이 宿世 지사가 있다는 것은 이 信忠이 아님이 분명하다. 자세히 살펴야 할 일이다.]

[3-1] 또 別記에는 이러하다. 경덕왕 때에 直長 李俊[『高僧傳』에는 李純이라고 하였다.]이 일찍이 소원을 빌었더니 나이 50이 되면 출가하여 절을 세우리라고 했다. 天寶 7년 戊子에 50세가 되자 槽淵小寺를 고쳐지어 큰 절을 만들고 斷俗寺라 하고, 자신도 삭발하고 法名을 孔宏長老라 했으며, 절에 거주한 지 20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앞의 『三國史』에 실린 것과 같지 않으나 두 가지 說을 다 실어 의심나는 점을 덜고자 한다.

[4] 讚해 말한다. <일연의 讚詩>⁵⁾

[1]은 신충과 효성왕의 약속, 효성왕의 약속 파기, <원가>의 帖木, 약속의 이행, 잣나무의 소생 등이, [2]는 경덕왕대의 신충의 패관, 入南岳, 단속사 창건 등이 각각 제시되며, [2-1]에는 [2]의 단속사와 관련된 고증이 부연되고 있다. [3]과 [3-1]은 일연이 신충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설로서 두 가지 상이한 기록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부분이고, [4]는 상찬의 의미를 담은 찬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그 진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면, [1]과 [2]는 서사적 진술로서 찬자인 일연이 이 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신충 이야기이고,

5)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基於宮栢柏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柏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柏樹 樹忽黃悴 王怪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양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柏樹乃蘇 歌曰 <怨歌> 由是寵現於兩朝 景德王[王即孝成之弟也] 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 願終身丘壑 以奉福大王 王許之 留眞在金堂後壁是也 南有村名俗休 今訛云小花里[按三和尚傳有信忠奉聖寺 與此相混 然計其神文之世 距景德已百餘年 況神文與信忠乃宿世之事 則非此信忠明矣 宜詳之] 又別記云 景德王代 有直長李俊[高僧傳作李純] 早曾發願 年至知命 須出家創佛寺 天寶七年戊子 年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爲大刹 名斷俗寺 身亦削髮 法名孔宏長老 住寺二十年乃卒 與前三國史所載不同 兩存之闕疑 讚曰 <讚詩>

[2-1]은 [2]에 대한, [3]과 [3-1]은 각각 [1]과 [2]에 대한 설명적 진술이며, [4]의 찬시는 신충패관조의 신충 이야기에 대한 일연의 총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사적 진술로 이루어진 [1]·[2]의 신충 이야기가 전체 서사 중 기본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 된다.

신충패관조의 서사 중,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이라는 피은편 서사의 핵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덕왕대의 이야기인 [2]가 해당한다. 신충이 벼슬을 버리고 南岳으로 피은하여 단속사를 창건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신충의 피은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이 경덕왕대 신충 이야기와는 달리 효성왕대의 이야기인 [1]은 피은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1]에는 피은으로서의 패관 이야기가 아니라, 신충이 <원가>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자 효성왕이 작록을 내렸다는 登官의 이야기가 나온다.⁶⁾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 [1]은 뒤에 [2]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도, 이 부분만으로 충분히 한 편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⁷⁾ 곧, [1]의 등관과 [2]의 패관은 각각 관직에 ‘나아감[出]과 물러남[處]’이라는 의미로서, 개별적으로 뚜렷한 구조를 지니고 신충패관조의 신충 이야기를 전과 후로 양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 속에서 [1]의 관직에 나아가는 등관과 관직에서 물러나는 [2]의 패관은 내용상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충패관조는, 피은으로서의 패관 이야기가 제시된 [2] 부분만이 아니라, 등관 이야기가 제시된 [1] 부분을 포함한, 등관에서 패관으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를 지닌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둘 사이의 의미소통 양상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1]의 등관과 [2]의 패관 사이에는, [1]의 말미에 제시된 ‘이로써 신충에 대한 총애는 兩朝에 두터웠다’와 [2]의 첫머리에 제시된 경덕왕에 대한 협주인 ‘왕은 곧 孝成王의 아우이다’로써, 그 서사적인 연결의 장치

6) [1]은 신충의 怨과 그 해소에 관한 내용으로, 이 怨은 곧, 등관에 대한 것이다.

7) 홍기삼, 앞의 책, p.449 참조.

가 마련되고 있다.⁸⁾ 이러한 서사적 연결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부분 서사 사이에 놓인 등관과 괘관 사이의 서로 상반된 의미의 연결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두 의미의 연결고리는 협주로 제시된 일연의 설명적 진술인 [3]의 『삼화상전』 이야기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 곧, 신충괘관조 서사의 기본 골격 이루는 두 부분 서사인 [1]·[2]의 신충 이야기와 [3]의 『삼화상전』 신충이야기의 관련양상을 추적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3]에 제시된 설명적 진술 내용상의 사실 여부를 살필 것이 아니라, [1]·[2]와 [3] 사이의 서사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또한 이러한 서사적 관련성의 의미를 신충의 이야기에 대한 일연의 의도가 집약되어 있는 찬시를 통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⁹⁾ 그렇게 함으로써 신충괘관조 전체의 서사적 의미소통의 양상은 물론,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이라는 피은편 전체 서사의 핵심 의미와의 긴밀한 관련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8) ‘兩朝’는 효성왕과 경덕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이전의 이야기에서 경덕왕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전의 효성왕대의 일과 이후의 경덕왕대의 일을 연결시키기 위한 서사적 의도가 개입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경덕왕은 효성왕의 아우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협주 역시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 외에 이러한 서사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승남, 주 2)의 논문, pp.51-53 참조.

9) 신충괘관조의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는 주로 [1]과 [2]의 서사적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3]은 설명적 진술이지만 그 구체적인 서사가 전하는 『삼국유사』의 다른 기록인 혜통황릉조에 또 하나의 신충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1]과 [2]의 서사적 의미소통을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고, [4]의 찬시도 이 [1]과 [2]의 신충 이야기에 대한 일연의 서사적 의도가 집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3]과 [4] 부분도 함께 주목하기로 한다. 하지만, [2-1]은 단속사에 대한 고증의 설명적 진술, [3-1]은 신충이 아닌 이순(이준)에 관한 일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서사적 전개에 주목하는 본고의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Ⅲ. 부분 서사들의 의미소통- 登官의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1]·[2]의 신충 이야기와 [3]의 『삼화상전』의 신충 이야기에는 각각, 효성·경덕왕대와 신문왕대라는 서로 다른 時空에 신충이라는 인물이 따로 존재한다. [3]의 『삼화상전』의 신충 이야기를 전하면서 일연은, 시기적으로 경덕왕대와 100여 년 차이가 있는 신문왕대에 있었던 신충과 왕 사이의 ‘宿世之事’를 언급하며, 두 사람의 신충이라는 인물이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 [3]에 언급된 ‘宿世之事’는 『삼국유사』의 또 다른 기록인 神呪篇 惠通降龍條에 보다 상세한 내막을 전하고 있다.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나서 혜통에게 치료해 주기를 청하므로 혜통이 와서 주문을 외어 병이 나았다. 이에 혜통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전생에 재상의 몸으로 臧人 신충이란 사람을 잘못 판결하여 종으로 삼으셨기에 신충이 원한을 지니고 윤회환생할 때마다 보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등창도 역시 신충의 탓이오니 마땅히 신충을 위해서 절을 세워 그 명복을 빌어 원한을 풀게 하십시오.”라 했다. 왕이 그러하다 생각하여 절을 세워 이름을 信忠奉聖寺라고 했다. 절이 완성되자 공중에서 “왕이 절을 지어 주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원한은 이미 풀렸습니다.”라고 하는 노래하는 소리가 났다.[或本에는 이 사실이 眞表의 傳記에 실려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또 노래를 부른 곳에 折怨堂을 지었는데 그 堂과 절이 지금도 남아 있다.¹⁰⁾

신충의 신문왕에 대한怨과 그 해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혜통행 룡조의 부분 서사를 통해 신충괘관조의 [1]·[2]의 서사적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위를 정리하여 신충괘관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0) 『三國遺事』, 卷第5 神呪 第6 惠通降龍.

①	혜통 향릉	신충이 원을 품어 신문왕이 등장이 나다
	신충 패관[1]	신충이 효성왕에게 원을 품어 잣나무가 시들다.
②	혜통 향릉	신문왕이 혜통의 말을 듣고 신충의 원을 풀어준다.
	신충 패관[1]	효성왕이 잣나무에 붙인 <원가>를 보고 신충에게 벼슬을 준다.
③	혜통 향릉	신문왕이 전생에 잘못된 판결로 신충을 종으로 삼아 신충의 원을 사다.
	신충 패관[1]	효성왕이 정사가 바빠 신충을 잊고 賞功에서 누락시켜 신충의 원을 사다.
④	혜통 향릉	절이 다 이루어지자 공중에서 원한이 풀렸다는 신충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신충 패관[1]	신충이 <원가>를 지어 궁정 뜰의 잣나무에 붙이다.
⑤	혜통 향릉	신문왕이 신충을 위해 절을 세워 信忠奉聖寺라고 하다.
	신충 패관[2]	신충이 경덕왕을 위해 斷俗寺를 짓고 평생토록 왕의 복을 빌다.

위의 표에서 혜통향릉조는 신충의 왕에 대한 원을 소재로 하고 있고, 또 신충이 노래를 부르거나 지었다는 점에서 신충패관조 [1]과 호응하며(①~④), 절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신충패관조 [2]와 호응한다(⑤). 따라서, 혜통향릉조의 서사는 창사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충패관조 [1]의 서사인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와 관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혜통향릉조와 신충패관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伸冤과 解冤의 의미 구조¹¹⁾를 통해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혜통향릉조의 이 신충 이야기는 서사는 서사 전체가 신원과 해원의 구조를 띠지만, 신충패관조의 신충 이야기는 앞부분 [1]이 신원과 해원의 구조를 띠고 있는 반면, 뒷부분인 [2]는 혜통향릉조와는 달리 절의 창건이 해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

11) 허왕욱, 「향가 원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열상고전연구』 1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p.195 참조.

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신원과 해원의 의미구조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신충의 쾌관과 남악으로 피은하는 이야기이다. 곧, 혜통항룡조의 伸冤과 解冤의 구조는 신충쾌관조에서 [2]가 아닌 [1]에 해당된다.

그런데 혜통항룡조와 신충쾌관조 [2]를 비교해 보면, 혜통항룡조의 신충봉성사 창건이 신충쾌관조 [2]에는 단속사의 창건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혜통항룡조의 신충봉성사 창건은 해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해원의 의미는 신충쾌관조에서 왕이 신충에게 벼슬을 내린 것에서 발견되고 단속사의 창건은 그 해원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지닌다. 결국, 신충쾌관조는 ‘신원→해원’의 혜통항룡조와는 달리 ‘신원→해원→해원의 보답’이라는 의미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구조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신충쾌관조 신충 이야기의 두 부분 서사인 [1]의 효성왕대 이야기와 [2]의 신문왕대 이야기 사이의 상반된 의미의 서사적 연결고리가 마련될 수 있다. [1]의 신원에서 [2]해원의 보답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해원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원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서사적 전개과정상의 한 지점에 신충의 등관이 있다. 곧 이 신충의 등관이 [1]과 [2] 사이의 의미 연결의 고리가 되고 있다.

신충쾌관조의 서사 전개과정에서, 이 등관은 ‘이로써 신충에 대한 총애는 兩朝에 두터웠다’는 내용과 호응하고, 또한 이 왕의 총애는 신충이 왕을 위해 단속사를 짓고 왕의 복을 빌었다는 [2]와 호응함으로써, 그 연쇄적인 서사적 전개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1]에서 신충의 등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충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왕이 신충을 총애했다는 식의 어색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신충의 왕에 대한 원이 풀리게 된 것이 아니어서, [2]의 신충이 왕의 총애에 대한 보답으로서 단속사를 짓고 왕의 복을 빌었다는 서사 전개는 그 필연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²⁾

12) 물론 이러한 등관의 의미는 <원가>를 잣나무에 붙인 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언급하기로 한다.

[1]에서의 신충의 등관은 君臣간의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순은) 그 후 왕(경덕왕)이 풍악을 즐긴다는 말을 듣고 즉시 대궐문으로 찾아갔다. 그는 왕에게 "제가 듣건대 옛날 걸주가 주색에 빠져 황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치가 문란하고 나라가 망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가는 수레 바퀴가 엮어지면 뒤 수레는 마땅히 이를 경계 하여야 합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대왕은 허물을 고치고 자신을 새롭게 바꾸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소서"라고 간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그치게 하고, 그를 큰 방으로 인도하여 도리의 오묘함과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며칠 동안이나 들었다.¹³⁾

위의 일연이 『삼국유사』에 신충 이야기 [2]를 전할 때 참고했던 『삼국사기』 해당 부분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이다.¹⁴⁾ 표면적으로는 신하의 왕에 대한 간언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간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왕의 신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위의 ‘왕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그치게 하고, 그를 큰 방으로 인도하여 도리의 오묘함과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며칠 동안이나 들었다.’라는 진술에서, 신하의 왕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아닌 왕의 신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제시되고 있다.¹⁵⁾ 신충괘관조 [1]의 신충 이야기에서의 믿음 역시, 신하인 신충에게 적용되는 신하의 도

13) 後聞王好樂 卽詣宮門 諫奏曰 臣聞 昔者桀紂荒于酒色 淫樂不止 由是 政事凌遲 夷 國家敗滅 覆轍在前 後車宜戒 伏望 大王改過自新 以永國壽 王聞之感歎 爲之停樂 便引之正室 聞說道妙 以及理世之方 數日乃止.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14) 단속사 창건의 주체가 『삼국사기』와 『高僧傳』에는 李純으로, 別記에는 李俊으로 되어 있지만, 『삼국유사』에는 신충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충괘관조 서사의 모든 내용을 신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일연의 서사적 의도에 주목하여, 이 조의 서사적 의미소통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5) 간언을 하는 행위는 신하의 왕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를 믿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신충의 등관이 의미하는 ‘믿음의 회복’이란, 왕이 신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회복함을 의미한다. 왕이 신충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믿음의 파기 곧,背信에 해당하며, 이 신충의 등관은 더 구체적으로 왕의 背信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회복’이 바로 신충괘관조의 서사적 전개과정에서 신충의 등관이 지닌 서사적 의미가 된다. 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등관의 서사적 의미는 신충의 신원에서 해원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전개과정에 개입되어 있다. 왕이 신충과의 약속을 잊어서 생긴 신충의 愆은 <원가>로서 그 신원이 이루어지고, 왕과 신충 사이에 믿음이 회복됨(등관)으로써 해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시들었던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술적 상징도 그 구체적인 의미소통의 맥락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잣나무의 소생은 현실적으로 왕의 총애가 다시 살아나 신충의 해원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는데, 이는 신원에서 해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믿음의 회복’으로서의 등관의 일이 개입되어 있는 서사적 정황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1]의 서사는 ‘믿음의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信的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1]의 말미 ‘신충에 대한 총애는 兩朝에 두터웠다’라는 진술은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 [1]과 경덕왕대 신충 이야기 [2]를 이어주는 서사적 연결장치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전개의 표면상 등관과 괘관 사이의 서로 상반된 의미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¹⁶⁾ 하지만 이 표면상의 어색한 연결은, ‘믿음의 회복’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서사적 의미를 담보로 그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고, [1]의 등관과 [2]의 괘관 사이의 의미소통의 맥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16) 이 진술은 [2]의 첫머리 ‘효성왕은 경덕왕의 아우이다’라는 협주와 함께 효성왕대의 등관과 괘관 사이의 연결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사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주 8) 참조.

[1]은 신원과 해원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며, 이어지는 [2]는 쾌관하고 산속으로 피은하여 단속사를 짓고 왕의 복을 비는 忠의 이야기이다. 곧, 등관과 쾌관 사이의 연결은 [1]에서의 해원과 [2]에서의 쾌관 및 피은 사이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원의 다음에 이어지는, 벼슬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산중으로 은둔하는 반사회적 이야기가 그 서사적 연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¹⁷⁾ 신충이, 그의 원이 해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버리고 은둔한다는 것은 어색한 연결이다. 또, 반사회적 의미의 쾌관과 피은으로부터 단속사를 짓고 왕의 복을 빌었다는 忠의 이야기로의 연결 역시 어색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의 등관과 [2]의 쾌관 사이에 놓인 서사적 연결의 어려움은 더 구체적으로 해원과 쾌관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된다.

앞에서, ‘믿음의 회복’이라는 등관의 서사적 의미가 [1]에서 신원으로 부터 해원으로 이르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을 살핀 바 있다. 여기에서도 ‘믿음의 회복’이라는 의미는 이 해원과 쾌관 사이에 개입하여 이 둘 사이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등관, 그것은 왕과 신충 사이의 믿음의 회복을 뜻한다. 벼슬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는 행위는 이러한 믿음을 회복한 등관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가 지닌 반사회적 의미는 제거된다. 믿음을 회복한 신충의 쾌관과 산속으로의 피은이 결코 반사회적 행위일 수 없을 것이다. 이로써 쾌관과 피은은, 이후에 이어지는 단속사를 지어 왕의 복을 비는 ‘忠’의 태도와도 원활한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을 생성하게 된다. 곧, [2]의 서사 전개과정에서 신충의 쾌관과 피은은 [1]의 등관이 지니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매개로, 왕을 위해 단속사를 짓고 복을 빌었다는 忠의 이야기로 무리 없이 연결되어 결말을 맺게 된다. 따라서, [2]의 서사는 ‘믿음의 회복’을 매개로 ‘충’의 의미를 구현한 ‘忠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17) 여기에서 벼슬을 버리는 쾌관은 ‘속세를 떠나 은둔하는’ 피은이 바로 이어져 있어, 피은이 지닌 이러한 반사회적 의미 속에 함께 포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1]의 왕에 대한 신충의 원을 소재로 한 신원과 해원의 이야기와, 그리고 [2]의 벼슬을 버리고 산 속으로 은둔하는 반사회적 의미의 피은 이야기는, [1]과 [2]를 관류하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통하여 각각 ‘신’과 ‘충’이라는 의미로 환치된다. 곧, [1]은 ‘믿음의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신의 서사’, [2]는 ‘믿음의 회복’을 매개로 한 ‘충의 서사’로서, 신충의 등관과 패관으로 양분되는 신충패관조의 이야기는 ‘신’과 ‘충’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서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충패관조의 신충 이야기는 피은의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이라는 피은편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의 맥락에 뚜렷하게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신충패관조의 말미에 붙여진 일연의 찬시는 이러한 신충패관조 서사의 총체적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功名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귀밑털이 먼저 세니
 왕의 총애는 비록 많아도 한평생이 바쁘다.
 언덕 저 편 산이 자주 꿈속에 드니,
 가서香火를 피워 왕의 복을 비오리.¹⁸⁾

위의 찬시를 앞에서 살핀 서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여기에는 [2]의 서사에 차례로 전개되는 신충의 패관, 피은, 단속사 창건이라는 내용이 각각 1·2행, 3행, 4행에서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1행에서 벼슬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었음을, 2행에서는 왕의 총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 나이가 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곧, 1행과 2행은 동일한 의미를 구성하며 패관에 주목하고 있다. 공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1행)은 왕의 총애가 아직 많다는 말(2행)과 같고, 귀밑털이 먼저 센다는 것(1행)은 한평생이 바쁘다는 말(2행)과 같다. 찬시는 신충의 패관이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택한 길임을 이렇게 두 행에 걸쳐 반복하

18) 功名未已髮鬢先霜 君寵雖多百歲忙 隔岸有山頻入夢 逝將香火祝吾皇.

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서사의 문맥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3행의 언덕 저 편 산이 꿈속에서도 보이는 것은 남악으로의 피은을 갈구하는 마음을, 4행의 향화를 피워 왕의 복을 빌겠다는 것은 단속사를 창건하여 왕의 총애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그린 것으로, 이 두 행은 신충의 패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남악으로 피은하여 단속사를 창건하고 왕의 복을 빌고자 하는 서사 문맥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찬시는 신충패관조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두 서사 중, 신충의 원과 그 해소의 내용이 제시된 [1]이 아닌 패관과 피은, 단속사 창건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2]를 압축하여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찬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신충의 패관이 스스로 나이가 들어 택한 것이라는 점을 1·2행의 두 행을 할애하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1·2행의 내용은, 신충패관조의 서사 전개상 그 시기로 보아 신충이 패관하기 전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왕이 신충에게 벼슬을 내린 이후로부터 패관 이전이 되며, 신충이 왕에게 원을 품었다가 해소된 이후인 [1]의 말미나, 아니면 패관 사실이 언급되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2]의 첫머리에 위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찬시의 이 1·2행은, 서사의 전개과정에서 신충의 원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패관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신충이 나이가 들어 스스로 패관했다는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셈이다.¹⁹⁾ 이 찬시는 표면적으로는 [2]의 서사를 압축하고 있지만, [1]의 서사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찬시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신충패관조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일연의 서사적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곧, 찬시의 1·2행에서 신충의 패관이 왕의 총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스스로 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패관 이전의 일로서 [1]의 신충이 왕에게 원을 품었다가 해소된 이야기가 신충의 왕에 대한 부

19) 이러한 찬시의 내용 역시, [1]의 등관에서 [2]의 패관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의미소통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정적 태도로 인식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인식을 차단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찬시에 보이는 이러한 일연의 의도를 서사의 문맥을 통해 살펴보자. 앞의 논의에서, [1]의 말미 ‘이로써 신충에 대한 총애는 兩朝에 두터웠다’라는 진술이, [1]의 등관 서사와 [2]의 괘관 서사를 연결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서사적 장치라 되고 있지만, 여전히 등관과 괘관이 라는 서로 상반된 의미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²⁰⁾ ‘兩朝’는 효성왕과 경덕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효성왕대의 일과 이후의 경덕왕대의 일을 연결시키기 위한 서사적 의도가 개입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²¹⁾ ‘이로써(由是) …… 두터웠다’라는 진술에는 이러한 서사적 연결의 의도와는 또 다른 하나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찬시 1·2행에서 드러난 일연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이로써(由是) …… 두터웠다’라는 말은 신충이 효성과 경덕 두 왕조에 걸쳐 총애를 받았다는 것인데, 신충이 총애를 받기까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유가, [1]의 서사에서 효성왕이 신충에게 작록을 내린 것이 희미하게 그러한 정황을 암시하는 것일 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²²⁾ 더구나 ‘兩朝’라는 표현 역시 이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급한 된 바 없는 경덕왕까지 포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처럼 두 왕의 총애를 말미에 짧게 언급하며 신충의怨에 관한 서사인 [1]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이怨의 이야기로 인해 파생될 수도 있는, 신충의 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인식을 차단하려 했던 찬시에서의 일연의 의도가 서사적 문맥을 통해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0) 앞에서, [2]의 첫머리 경덕왕에 대한 협주인 ‘왕은 곧 孝成王의 아우이다’라는 진술도 이러한 연결 장치의 하나임을 언급한 바 있다. 앞의 주 8)과 해당 본문 참조.

21) 앞의 주 8) 참조.

22) 신충이 <원가>를 붙여 잣나무가 시들었다가 왕이 벼슬을 주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나 <원가>의 내용이 곧바로 신충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서사적 전개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찬시는 마지막 행에 ‘가서香火를 피워 왕의 복을 비오리’로서 왕에 대한 ‘충’의 정서를 표방함으로써, 신충패관조 [2]의 서사적 결말과 동일한 의미의 결구로 끝을 맺고 있다. 이로써 일연의 찬시는, 신충패관조의 [1]의 ‘신’의 서사를 포괄하여 [2]의 ‘충’의 서사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신충패관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서사적 의도가 신충의 ‘충’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점 역시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이라는 피은편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에 긴밀하게 호응하는 것이다.²³⁾

IV. <원가>의 서사적 위상과 정서적 지향

삼국유사 소재 다른 향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가> 역시 이 가요가 발생한 배경을 알리고 있는 서사에 기대어 그 문학적 성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대체로 주술적 가요나, 연군가, 혹은 관료의 노래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²⁴⁾ 여기에서는 신충패관조 서사의 의미소통에 있어서 <원가>가 지니는 서사적 위상을 점검하고, 이러한 서사적 위상에서 <원가>가 한 편의 가요로서 지니는 문학적 구조와 그 정서적 지향을 살피기로 한다.

지금까지 살핀바와 같이, ‘등관 약속→약속의 잇음→등관→패관→단속사 창건’ 등으로 이어지는 신충패관조의 서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단하면 등관 이야기와 패관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 이 등관과 패관은 각각信的 서사와 患의 서사로서 이루어진다. 또 전반부 신의 서사에서

23) 찬시에 나타난 피은을 정치 질서에서의 일탈로 인식하고 이러한 일탈이 주체와 세계의 조화관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기도 한다. 박상영, 「삼국유사 소개 찬시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인식」, 『고전문학연구』, 30집, 2006, p.162.

24) <원가> 성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는, 김학성, 「향가의 장르체계론」, 『대동문화연구』, 27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2와, 김영수, 「원가 연구의 쟁점 소고」, 『향가연구』,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1998 등 참조..

의 신충의 등관은 서사적 전개 과정에서 후반부의 충의 서사로 긴밀하게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있다. 전반부의 신의 서사는 등관이 라는 서사적 의미 곧, 왕의 신충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핵심으로 하여 신원에서 해원으로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신충이 지은 향가인 <원가>가 지니는 서사적 위상은 전반부 ‘신’의 서사에서 신충의 등관을 가능하게 한 가요라는 점에서 찾아진다. 곧, 효성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잡저시에 신충과 바둑을 두면서 한 약속을 잊고 신충에게 벼슬을 주지 않자, 신충이 <원가>를 지어 잣나무에 붙여 신원을 함으로써 잣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이다. 잣나무가 소생하여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이야기는 신충의 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반부 서사에서 등관이 갖는 의미는 이로써 마무리된다. <원가>가 이처럼 신원을 통하여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해원 혹은 등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서사적 위상이 발견된다면, 이 <원가>의 서정에 대한 논의는, 신충의 왕에 대한 원의 정서만이 아닌 해원 혹은 등관까지 포괄하는 서사적 전개상의 정서적 지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⁵⁾

한참 무성한 잣(栢)이
가을에 아니 어울어지매
너를 어찌 잊어 하시던
우렐던 얼굴이 계시온데
달 그림자가 옛 못(淵)의
가는 물결 원망하듯
모습이야 바라보나
누리도 싫은지고!
[後句亡]²⁶⁾

25) 본고에서의 <원가>의 정서적 지향에 대한 인식은, <원가>를 잣나무에 붙여 잣나무가 시들게 되었다는 주술성에 대하여 주술성 그 자체가 아닌, 서사적 전개에 있어서 그것이 지닌 보다 현실적인 의미소통의 맥락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위 1구~4구에서 화자는 ‘한참 무성한 잣이 가을에 시들지 않음’을 언급함으로써, 5~8구에서의 원의 표명[신원]을 위한 전제로 삼고 있다.²⁷⁾ 1·2구의 잣나무가 가을에도 시들지 않음은 자연의 현상이자 섭리이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는 3·4구의 진술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3·4구에 언급된 ‘너를 잊지 않겠다’는 왕의 약속이 지켜져야만 하는 당위성, 그 약속의 엄중함을 미리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당위성의 강조 속에서 왕의 약속은, 왕과 화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인식의 영역으로부터 보다 객관화된 인식의 영역으로 노출된다. 5~8구에서 화자의 신원은 비록 왕에 대한 신하의 원망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약속에 대한 왕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기에,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 배신이 자연의 섭리를 어긴 것임과 동시에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약속이 더욱 객관적인 인식의 장으로 노출되었기에, 그러한 왕의 신하에 대한 원망의 연사는 윤리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5·6구에서 달그림자가 연못의 가는 물결을 원망한다는 말은, 연못에 물결이 일어 거기에 비친 달그림자가 흩어지고 흐려지는 것을 두고 한 표현이다. 여기서도 화자는 1·2구에서처럼 자연의 현상을 비유로 정서 표출을 시도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물결에 흔들리는 달그림자에 비유하며 왕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흔들리는 물결에 달그림자가 흩어지고 흐려지는 자연의 현상은,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심정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7·8구의 ‘모습이야 바라보나 누리도 싫은지고’는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원망은 체념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흔들리는 물결에 흩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며, 단지 세상에 대한 부질없는 원

26) 임기중, 『우리의 옛 노래』, 현암사, 1993, p.42.

27) <원가>의 구조에 대하여, 1·2구와 5·6구는 비유로, 3·4구와 7·8구는 각각 그에 대한 직설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신재홍, 『향가와 의사소통』, 『국어교육』 125집, 한국어교육학회, 2008, pp.59-60.

망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²⁸⁾

이상과 같은 <원가>의 시상 전개를 정리하여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구	내용	잣나무가 가을에 시들이 아니함
	의미	자연의 섭리 1
	진술구조상 의미	후반부 정서 표출을 위한 전제로서의 상황적 진술. 5~8구에서의 원망의 정서 표출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 확보
3·4구	내용	왕이 약속을 잊지 않겠다면 말을 상기함
	의미	1·2구로 인해 약속의 엄중함과 당위성 확보
	진술구조상 의미	1·2구 상황의 구체성 제시
5·6구	내용	달그림자가 가는 물결을 원망함
	의미	자연의 섭리 2
	진술구조상 의미	7·8구에서 표출되는 원망의 정서적 지향을 미리 암시함
7·8구	내용	세상에 대한 원망
	의미	원망 정서의 직접적 표출
	진술구조상 의미	5·6구로 인해 정서적 지향의 구체적 면모(체념)가 드러남

<원가>의 노랫말이 향찰로 전하고 있는 문면 말미는 ‘後句亡’으로 되어 있어, 이 가요를 10구체의 향가로 인식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요는 현전하는 8구만으로도 가요의 정서를 온전히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크게 보면 1~4구와 5~8구의 두

28) <원가>의 시상 전개와 정서의 추이는, 시적 대상과의 굳건한 믿음으로 연대된 조화롭던 과거(평정 속의 기대감)→위약한 시적 대상과 관계의 단절로 돌변한 현실(절망적 세계인식에서 발현된 원망과 절망의 정서 고양)→침착한 상황인식과 자아에 대한 성찰(고양된 정서의 하강과 객관화)→내면으로의 침잠과 세상사의 무상성에 대한 자각(의연한 체념을 통한 해소)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형대, 「원가와 정과정의 시적 인식과 정서」, 『한성어문학』 18집,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1999, p.110.

29) 기존의 논의들에서도 이러한 점이 언급되었는데, 이와는 달리 <원가>는 10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위와 같은 전개 구조상 전반부에는 상황에 대한 제시가, 후반부에는 정서의 표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반부의 진술은 후반부의 진술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서의 표출이 이루어지는 5~8구 중 마지막 8구에서 최종적으로 이 가요의 정서를 마무리하여 표출함으로써 한 편의 가요로서 부족함이 없이 그 정서적 완결을 이루어 내고 있다.³⁰⁾

앞에서 살폈듯이 1~4구에서는 1:2구의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진술로 인해, 3:4행의 ‘너를 잊지 않겠다’는 왕의 약속이 그 엄중함과 당위성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 5~8구에서 왕을 향한 신하의 원망은 그 윤리적 타당성이 확보된다. 여기에서 1:2구와 3:4구의 진술은 각각 상황의 객관성과 구체성이라는 구조적 의미를 지닌다.³¹⁾ 5:6구에서 화자는 또 다른 하나의 자연의 섭리를 비유로, 이어지는 7:8구의 진술이 지니는 정서적 지향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유는 이어지는

구체가 아닌 8구체로서 체념이 그 정서적 주조를 완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진옥, 「원가 형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53집, 한국언어학회, 2004, pp.273-274 참조. 하지만 본고의 논의는 이 가요가 8구체인가 혹은 10구체인가의 여부를 떠나, 이 가요가 현전하는 8구만으로도 한 편의 가요로서 지니는 정서적 완결을 무리 없이 이루어 내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 30) <원가>가 지니는 이러한 작품구조는 8구체의 향가인 <처용가>, <모죽지랑가>와 유사하다. <처용가> 1:2구: 달 밝은 밤의 유흥(아내 빼앗기게 되는 사건의 개연성 제공)-객관적 상황/ 3:4구: 간통 현장의 구체적 모습-구체적 상황 제시/ 5:6구: 회화적 진술-7:8구의 정서적 지향 암시/ 7:8구: 어찌하리오-아내를 빼앗긴 정서의 직접적 표현. <모죽지랑가> 1:2구: 사별 상황에 대한 슬픔-상황의 객관성/ 3:4구: 살아생전의 임의 모습 회상-상황의 개별성, 구체성/ 5:6구: 재회에 대한 전망-7:8구의 정서적 지향 암시/ 7:8구: 재회의 확산-주제의 직접적 표출.
- 31) <원가>의 시상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1~4구: 객관적 상황의 변화-나를 결코 잊지 않겠다던 왕의 失約(배신)/ 5~8구: 상황 변화에 달라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시적 자아의 인식 및 탄식-물결에 흔들려 못 속으로 빠져드는 모래와 같음(세상을 모두 잃어버림). 성호경, 「사뇌가 작품의 시적 구조와 난해 어구의 의미 범주-원가, 찬기파랑가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18집, p.234.

78구의 원망에 대한 것으로 이 원망의 표출을 돕는 동시에 원망의 정서적 지향을 체념으로 규정하는 장치가 된다. 이로써 마지막 78구에는 1~4구에서 확보된 원망의 윤리적 타당성조차 무위로 돌려버리는 체념의 정서 속에서 화자의 원망의 정서가 탄식으로 표출된다.³²⁾ 이러한 체념 속에서의 원망 혹은, 원망의 체념적 표출이라는 정서적 지향은 <원가>를 원망이라는 정서만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이 된다. <원가>는, 원망의 정서가 단지 원망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념 속에서 탄식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정서의 표출은 타인이나 세계에 대한 대립적 정서를 지향하지 않음으로써, 향가라는 서정장르에 속하는 가요로서 이 가요가 지니는 서정성의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징표를 지니고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신충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단속사 창건의 주체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그에 대한 일연의 설명적 진술들이 생성하고 있는 서사적 전개상의 관련 양상에 주목하여, 신충패관조 서사의 의미소통의 맥락을 드러내고 향가 <원가>의 서사적 위상과 그 정서적 지향을 살피고자 했다. 논의의 대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피은편은 피은의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한 주인공들에 대한 賞讚의 서사로서, 모든 개별 서사들이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으로 귀납되고 있다. 피은편 서사의 하나인 신충패관조 역시 찬자인 일연의 이러한 서사적 의도를 바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신충패관조는 서사

32) 원가의 정서에 대하여 탄식과 한탄은 하였으되 원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pp.159-160) 원망의 대상을 왕이 아닌 ‘누리’로 보기도 한다. (윤영옥, 『신충패관과 원가』,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1』, 김열규, 신동욱 편, 새문사, pp.136-137.)

적 진술로 이루어진 효성왕대 이야기와 경덕왕대 이야기, 이 서사적 진술에 대한 설명적 진술 및 찬시 등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충패관조 신충 이야기의 기본 골격이 되는 서사적 진술 부분은 각각 등관과 패관이라는 서로 상반된 의미로 양분되고 있다. 이 두 상반된 의미의 연결은 신충패관조 서사적 의미소통의 맥락을 드러내는 관건이 되는 것으로, 그 연결의 실마리는 이 조의 설명적 진술 부분인 『삼화상전』에 대한 일연의 언급을 통해 마련된다.

『삼화상전』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또 다른 기록인 惠通降龍條에 보이는데, 혜통항룡조는 ‘신원→해원’의 의미구조를 지니지만 이와는 달리 신충패관조는 전체적으로 ‘신원→해원→해원의 보답’이라는 의미구조 속에서, 신충의 등관을 연결고리로 하여 신원에서 해원으로의 서사적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 등관은 왕와 신하의 ‘믿음의 회복’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로써 이 효성왕대 이야기는 ‘信’의 서사가 된다.

등관과 패관 사이의 상반된 의미의 연결은 ‘믿음의 회복’이라는 등관의 서사적 의미로 인해 그 어색함이 해소되고 서사 전개상 의미소통의 맥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등관과 패관 사이의 연결을 서사 전개의 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면, 원이 해소된 해원의 이야기와 단속사를 짓고 왕의 복을 빌었다는 患의 이야기 사이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반사회적 의미를 지닌 패관과 피은의 이야기가 놓여 있다. 이 반사회적 의미의 패관과 피은은 그 이전의 해원의 이야기와의 연결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患의 이야기와의 연결도 어색함이 노출된다. 이러한 연결의 어색함은, 효성왕대 신충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서사적 의미로 인하여 패관과 피은의 이야기가 그 반사회적 의미를 제거하게 됨으로써 해소되고, 그 서사적 전개상 원활한 의미소통의 맥락이 생성된다. 이로써 경덕왕대의 신충 이야기는 ‘믿음의 회복’을 매개로 ‘충’의 의미를 구현한 ‘患의 서사’가 된다.

이처럼 신충의 등관과 패관으로 양분되는 신충패관조의 서사는, ‘믿

음의 회복'이라는 등관의 서사적 의미를 통하여 각각 '신'과 '충'이라는 의미로 환치되어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이라는 피은편 전체 서사의 의미소통 맥락에 뚜렷하게 포섭될 수 있다. 신충괘관조의 말미에 붙여진 일연의 찬시는 표면적으로는 경덕왕대의 괘관과 피은, 단속사 창건 등의 서사를 서사만을 압축하고 있지만, 신충의 괘관이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택한 길임을 두 행에 걸쳐 반복하여 강조하며, 효성왕대 서사인 怨의 이야기로 인해 파생될 수도 있는 신충의 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인식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연의 의도는 서사의 문맥을 통해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로써 찬시는 '원'의 서사를 포괄하면서도 '원'이 아닌 '충'의 정서를 표방함으로써, 일연이 신충괘관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명예로운 사회적 가치의 획득'이라는 피은편 전체 서사적 의미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다.

<원가>의 서사적 위상은 신원을 통해 해원 혹은 등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서사적 위상이 발견된다. 또한 <원가>는 현전하는 8구만으로도 한 편의 가요가 지닌 정서적 완결을 무리 없이 이루어 내고 있는데, 크게 1~4구와 5~8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시상 전개 구조 속에서 체념 속의 원망의 정서로 마무리된다. 원망이 체념 속의 탄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가>는 타인이나 세계에 대한 대립적 정서를 지향하지 않음으로써, 향가라는 서정장르에 속하는 가요로서 그 서정성의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징표를 지니고 있다.

<참고 문헌>

- 『三國遺事』, 卷第5 避隱 第8 信忠掛冠, 卷第5 神呪 第6 惠通降龍.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 연구』, 태학사, 1995.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98.
 양주동, 『增訂고가연구』, 일조각, 1990.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임기중, 『우리의 옛 노래』, 현암사, 1993.
 조동일, 『제3판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4.
 홍기삼, 『향가설화연구』, 민음사, 1998.
 김석희, 「서정시 형식의 완성과 향가」, 『민족문학사 강좌 상』, 창작과 비평사, 1995.
 김성기, 「원가의 연구」, 『고시가연구』 12집, 고시가연구회, 2003.
 김영수, 「원가 연구의 쟁점 소고」, 『향가연구』, 국어국문학학회, 태학사, 1998.
 김진욱, 「원가 형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5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4.
 김학성, 「향가의 장르체계론」, 『대동문화연구』 27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2.
 박상영, 「삼국유사 소개 찬시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인식」,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서철원, 「신라중대 향가에서 서정성과 정치성의 문제-성덕왕대 헌화가, 원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3집, 민족어문학회, 2006.
 성호경, 「사뇌가 작품의 시적 구조와 난해 어구의 의미 범주-원가, 찬기파랑가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신재홍, 「향가와 의사소통」, 『국어교육』, 125집, 한국어교육학회, 2008.
 양희철, 「향가의 분절에 관한 연구-삼국유사에 수록된 11분절 향가의 원전

- 비평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47집, 2001.
- 윤영옥, 「신총괘관과 원가」,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2.
-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36집, 진단학회, 1973.
- 이도흠, 「향가 텍스트와 서사 맥락의 합일문제」,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
시가학회, 2003.
- 이승남, 「삼국유사 신총괘관조에 나타난 일연의 서사적 시각」, 『한국사상과
문화』 40집, 2007.
- 이승남, 「우적이 일고찰」, 『한국문학연구』 1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 이종건, 「원가」, 『국제어문』 19집, 국제어문학회, 1998.
- 이형대, 「원가와 정과정의 시적 인식과 정서」, 『한성어문학』 18집, 한성대학
교, 1999.
- 허영순, 「원가고」, 『국어국문학지』 3집, 문창어문학회, 1961.
- 허왕욱, 「향가 원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열상고전연구』 17집, 열상고전연
구회, 2003.
- 황폐강, 「삼국유사와 향가연구」, 『향가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1998.

Abstract

*The Communication of Narrative Meaning in Samgukyusa Shinchoonggwagwan
and Narrative Phase and Emotional directivity of <Wonga>*

/ Lee Seungnam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of narrative meaning in Samgukyusa Shinchoonggwagwan and on narrative phase and emotional directivity of <Wonga> a kind of Hyangga. The Connection of two opposite meaning, entering the government service and withdrawing from the post which are dividing the narration of <Shinchoonggwagwan> into two, is the key point of revealing the context of the communication of this narration. A story of Shinchoong under a reign of King Hyusung is a narration of 'trust', which has a narrative meaning of "trust" as a key point, and shows a narrative development. Through a narrative meaning of retrieving trust the story of withdrawing from a post loses an antisocial meaning. Then, there begins a better context of narrative communication between entering and withdrawing from a government services, and, at last, the story of Shinchoong becomes a 'narration of royalty'. As seen above, a narration of <Shinchoonggwagwan> that represents a meaning of trust and royalty can be exactly included in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whole narration of Seclusion chapter which presents 'winning honorable social value'. Also, Ilyon's a glorifying poetry attached at the end of the story through presenting feeling of royalty the poetry closely interacts with the narrative meaning of the story of Seclusion chapter. Even though there are only eight lines transmitted today, a narrative phase of <Wonga>, which can be found during a course of connection from Shinchoong in the reign of King Hyosung to Haewon through Shinwon, specifically, is ended with a grudge in resignation as making a emotional conclusion as one

song. This <Wonga> has a more individual and specific sign as a song included in a lyric genre Hyangga since it is not aiming opposite emotion toward others or the world.

Key words: Samgukyusa, Seclusion, Shinchoonggwagwan, Hyangga, <Wonga>, glorifying poetry, entering the government service, communication of meaning, emotional directivity.